전북자치도,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 총력"

24~28일 도정 핵심 일정 발표… 서부수마트라주와 우호 협약 체결 · 하계 올림픽 유치 전략 심포지엄 등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 21일 오전 도청 기자실에서 정례 브리핑을 열고, 24일부터 28일까지 이어지는 주요 도정 일정과 추진 계획을 밝혔다.

김철태 대변인은 "도민과 함께 소통하는 열린 도정을 위해 각종 행사와 정책 추진이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다"며 세부 계획을 소개했다.

24일에는 'DX 시대 미래 농식품 기술동향과 과제 - 당신이 모르는 진짜 농업 경제 이야기'를 주제로 한 소통의 날 행사가 공연장에서 열린다. 김 대변인은 "급변하는 농업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25일 오전 11시 30분 도청 중회의실에서는 전북도와 인도네시아 서부 수마트라주 간 우호협력 체결식이 진행된다. 김관영 지사와 서부 수마트라주 마히엘디 안샤룰라 주지사가 직접 참석해 상호 교류 확대 의지를 확인할 예정이다.

김철태 전북특별자치도 대변인이 지난 21일 오전 도청 기자실에서 정례 브리핑을 열고, 24일부터 28일까지 이어지는 주요 도정 일정과 추진 계획을 밝혔다.

같은 날 오후 2시에는 라한호텔에서 '2025 제3회 탄소중립·녹색성장 권역 릴레이 포럼'이 열린다. 세 명의 전문가가 발제에 나서며, 전주하계올림픽유치추진단 서배원 유치총괄과장은 '탄소중립 친환경 올림픽'을 주제로 15분간 발표한다.

26일은 2025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사실상 마지막 대응 주간이다. 김 대변인은 "민주당이 법정 기한 준수를 예고하며 예산 증액 심사가 막바지에 접어들었다"며 "전북도에서도 총력을 다해 대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침 6시 30분 라한호텔에서는 '제3회 전북 CEO 지식향연'이 열리며, '트렌드 코리아 2026'의 연구위원이 직접 강연한다. 또한 호남광역권 반도체 포럼 및 취업 페스티벌이 더메이호텔에서 하루 종일 개최된다.

27일 오후 2시, 서울 올림픽 파크텔에서는 '하계 올림픽 유치 전략 심포지엄'이 열린다. 유치단이 주최하는 이번 심포지엄에는 기조강연과 발제, 토론이 이어지며, 국내외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한다.

28일 오후 2시에는 남원 공공산후조리원이 문을 연다. 도지사 공약 사업으로 도비·시비 각각 50%씩 투입해 총 70억 원을 들여 건립됐으며, 건립 비용은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충당된다. 김 대변인은 "도민 삶의 질 향상과 출생 친화 환경 조성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날 오후 6시에는 소상공인의 날 기념식이 라한 호텔에서 열린다. 또한 27~28일 양일간 주한 외교관들을 초청해 '전북 치유관광 체험 및 자연 공생 포럼'이 마련된다. EU·아세안 국가의 대사 및 공관 관계자들이 참여해 전북의 매력을 직접 체험한다.

전북자치도는 정부·국회와의 예산 협의가 집중되는 만큼 도지사와 실·국장단, 지휘부가 국회와 기재부를 상대로 전방위 대응에 나선다고 밝혔다.

특히 전북 출신 국회의원과 전북 연고 국회의원들과 공조 체제를 구축하고 긴밀히 협의하여 전북의 주요 사업 예산 확보에 적극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한병도 국회 예결위원장이 전북 지역 국회의원이라는 이점을 살려 전북의 역점 주요 사업이 예산에 반영되도록 총력전을 펼친다는 방침이다.

국책사업 발굴 회의, 바이오 기관장 포럼, 탄소 산업 종합계획 중간보고회 등 실·국 단위 일정도 이어진다.

전북자치도의 '열린 도정' 행보는 도민과의 소통 확대와 현안 해결을 병행하며 더욱 신뢰를 얻고 있다. 김철태 대변인은 "도민과 함께하는 도정 운영을 흔들림 없이 이어가겠다"며 변함없는 의지를 전했다.

/이만호 기자

도, 시설원예분야 '전국 1위' 지자체

2년 연속 우수 지자체 선정에 이어 '최우수'로 도약

시설원예분야 국비 예산 최다 · 기관표창 및 포상금

전북특별자치도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시설원예지원사업 워크숍에서 '2025년(2024년 실적) 시설원예분야 평가' 결과 광역부분 최우수 지자체, 무주군은 기초부분 우수 지자체로 각각 수상했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전북자치도는 올해 처음 전국 1위 최우수 지자체로 이름을 올리며, 시설원예 정책 추진체계 전반의 성과를 정부로부터 인정받았다.

특히 도는 민선8기 핵심 정책으로 스마트농업 확산, 온실가스 저감과 저탄소 농업 실현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시설 지원 확대, 청년농 창업 지원 등 혁신정인 정책을 추진해 왔으며, 이러한 노력이 2023년~2024년 2년 연속 우수 지자체 선정에 이어 올해 한 단계 더 높은 성과로 평가받았다.

이번 평가는 전국 15개 광역시도와 46개 시·군을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예산 집행율과 사업 추진 실적을 반영한 정량평가와 지원체계 구축 및 사업 확산 노력을 평가한 정성평가 결과, 전북자치도는 최우수 지자체로 무주군은 우수지자체로 각각 선정됐다.

전북도는 이번 수상을 계기로 2026년 시설원예분야 국비 예산을 전국 최다로 확보하게 되었으며, 이는 오롯이 도내 농업인들에 대한 지원 강화로 이어질 전망이다.

민선식 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올해 수상은 단순 실적을 넘어, 도가 추진해온 시설원예 정책의 방향성과 실행 체계가 제대로 자리 잡고 있다는 점을 확인한 계기"라며 "평가 결과가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내년 사업 준비에도 속도감 있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도심형 탄소플러스 복합공간 조성 공모 선정

도, 국비 22억여원 확보… 전북연구원 부지에 정원 · 교육홍보관 조성

전북특별자치도는 산림청이 주관한 '도심형 탄소플러스 복합공간 조성사업' 공모에서 국비 22억3,000만원을 확보했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전주시 완산구 콩쥐팥쥐로 소재 전북연구원 부지에 총 42억8,000만원 규모로 '탄소플러스 정원'과 '탄소중립 교육홍보관'을 조성하는 프로젝트로, 2026년부터 2027년까지 추진된다. 예산은 국비 22억 3,000만원, 지방비 20억5,000만원이 투입된다.

조성될 '탄소플러스 정원'은 탄소 흡수·저장 능력이 높은 수종을 식재하고, 바이오차 기반 토양 개선, 수직·옥상정원 등 저탄소 녹화기술을 적용해 도심형 기후대응 공간으로 꾸며진다.

함께 조성되는 '탄소중립 교육홍보관'은 목조 구조물로 건립되며, 정원 문화 교육과 탄소중립 실천 체험을 제공하는 시민 참여형 교육시설로 운영될 예정이다.

아울러 정원 조성·관리·교육을 기반으로 한 시민참여형 프로그램도 약 10개 운영해 매년 3,900여명이 참여할 계획이다. 해당 사업을 통해 연간 약 1,823톤의 탄소 감축 효과가 기대된다.

/이만호 기자

전북자치도, 지방상수도 17개 정수장 수질 전 항목 '적합' 판정

전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올해 상·하반기 지방상수도 수질 실태조사를 시행한 결과, 도내 17개 정수장에서 생산되는 수돗물이 모든 항목에서 수질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조사는 도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공급을 목표로 4~5월과 9~10월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됐으며, 한국수자원공사가 관리하는 광역정수장 4곳을 제외한 도내 전체 지방정수장을 대상으로 원수와 정수에 대해 분석을 수행했다. 조사 항목은 '상수원 관리규칙'에 따른 상수원수 38개 항목, '먹는물 수질기준'에 따른 정수 59개 항목으로 이뤄졌다.

점검 결과, 정수 중 일반세균, 대장균군 등 미생물과 납, 비소, 수은과 같은 유해 중금속류 모두 불검출로 나타났다. 또한 농약류와 휘발성유기화합물질 등 환경오염 가능성이 있는 항목들 역시 모든 정수장에서 기준을 충족했다.

/이만호 기자

국가예산 10조 확보 '고지전' 전방위 대응 나서

"국가예산 확보 결과에 따라 내년 도정사업 규모 · 속도 · 완성도 결정" … 예결위 · 기재부 집중 면담 주문

"도민 숙원 지체 없게 새만금 공항에 대한 도민 열망 결집해야" · 올림픽 유치 정부 승인 준비 철저 당부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지난 21일 간부회의에서 "국가예산 확보 결과에 따라 내년 도정사업의 규모·속도·완성도가 결정된다"며 "정부안에서 과소·미반영된 70대 중점사업들을 국회단계에서 최대한 반영시켜 10조원 목표 달성을 이뤄내자"고 강조했다.

특히, "예결위원회, 기획재정부 등 관계자 면담에 간절함을 가지고 적극 나서라"며 "전북자치도가 가진 지역 잠재력과 균형발전 논리의 강점을 부각하고, 일관된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주력하라"고 주문했다.

의회 심의를 앞둔 2026년 예산안에 관해서는 "재정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이지만, 주요 현안 추진의 동력을 잃어서는 안된다"며, "2026년은 도정이 지향해온 큰 축들이 가시적 성과로 이어지는 해로, 그 어느 때보다도 세심하고 절실하게 예산 심의에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김관영 도지사

새만금 국제공항 취소소송과 관련해서는"집행정지와 항소심 대응에 전력을 다해 도민 숙원사업이 지체되는 일이 없게 대응하라"며 "성공적인 범도민 운동과 여론 결집으로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의 사회적 합의를 분명히하고 도민의 단단한 지지를 동력삼아 소송에 임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흔들림 없는 올림픽 유치를 강조하며 "IOC와 문체부가 요구하는 핵심 현안 이행에 치밀하고 흔들림 없이 대응해 도민의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며 "올림픽 유치 골든타임 실행 TF 운영 시 실국 간에 경계 없이 한 몸처럼 움직이고, 내년도 1월까지 '올림픽 유치 동의안'을 도의회의 승인을 받아 정부 승인 절차에 차질 없게 준비해달라"고 주문했다.

끝으로, 조직의 전문성 고도화 필요성에 대해 역설하며, "정책환경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려면 간부들의 자발적인 학습이 필수적임"을 강조하는 가운데 "백년포럼, 소통의 날 행사, 실국별 전문가 간담회 등에서 얻는 인사이트가 도정 운영의 깊이를 더하는 만큼 간부가 솔선수범하여 적극 참여하라"고 지시했다.

/이만호 기자

장수 뜬봉샘 생태관광지역서 역량강화 교육

전북환경청, 지역주민 · 생태관광 협의체 종사자 대상

전북지방환경청이 24일 장수군 '뜬봉샘 생태관광지역'에서 지역주민과 생태관광 협의체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역량강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 교육은 생태관광의 조기 정착을 지원하고 지역사회 중심의 지속가능한 생태관광 모델을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북지방환경청은 2020년부터 매년 생태관광지역 주민과 종사자를 위한 교육을 이어오고 있다. 특히 올해는 새롭게 지정된 장수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 고유의 생태자원을 보전하면서도 이를 관광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둔다.

교육 프로그램은 △국내 생태관광 활성화 사례 △금강 발원지의 생태·지형적 특성 △탐방객 안전관리 방안 △지역 기반 지속가능 관광프로그램 발굴 전략 등을 내용으로 구성된다. 더불어 지역 종사자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생태관광지역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의견 공유 세션도 마련된다.

/오상근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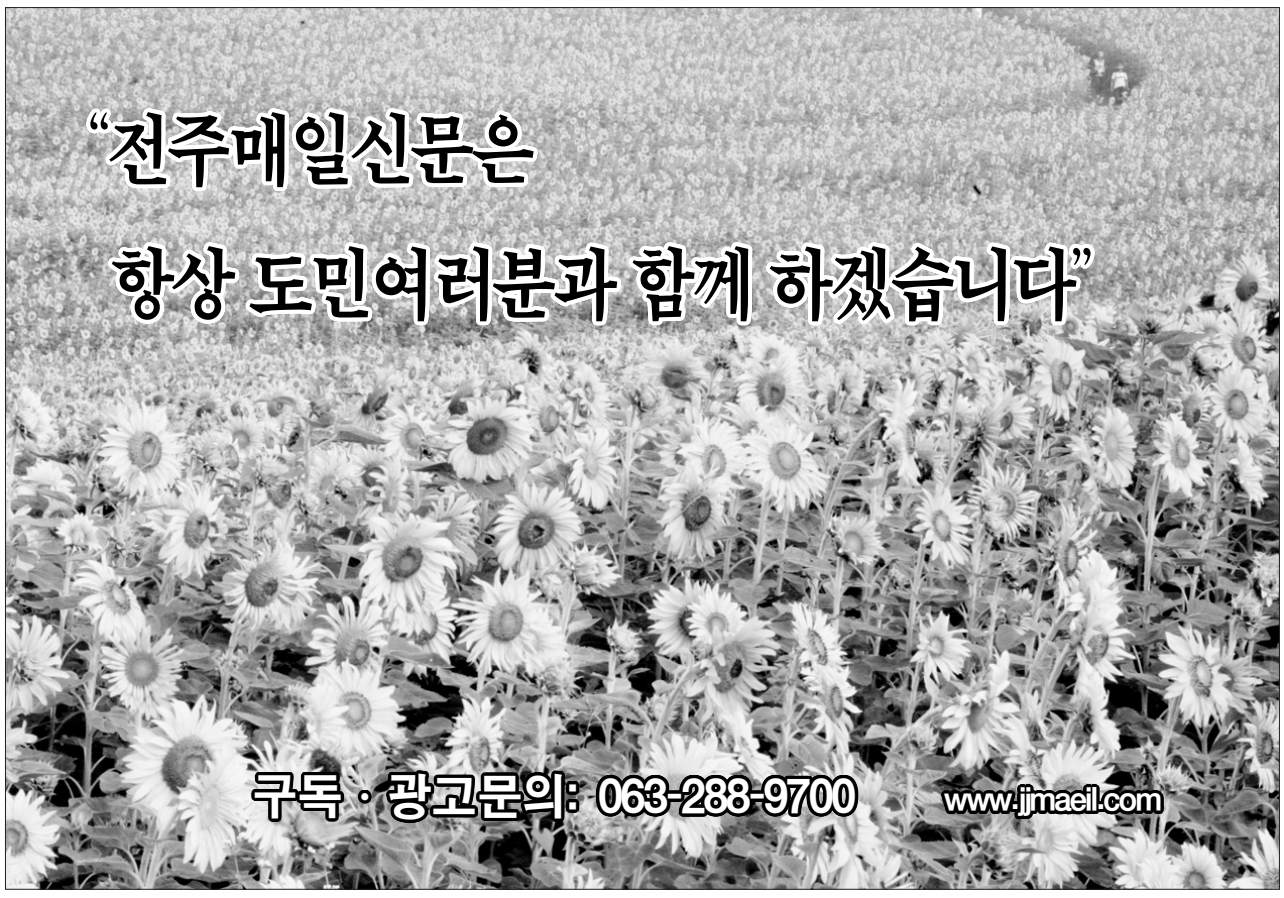
전주시 공고 제2025-2469호

지방하천(가동천) 하천구역 결정(변경)에 따른 열람공고

지방하천인 가동천의 하천구역(변경) 안에 대하여, '하천법' 제10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하천구역 결정(변경), 지형도면 고시(안)의 열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주민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관련서류를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을시 열람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 하천구역 결정(안)

하천명	하천등급	하천구간			구분	면적(㎡)		결정일	비고
		기점	종점	거리(km)		당초	변경		
가동천	지방	전주시 완산구 석구동 산67번지선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3가 867번지선	2.64	하천구역 변경	40,017	49,260 (증6,898)	추후 별도 고시	하천구역 일부구간 결정
열람서류 : 1.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의 세목을 적은 서류 2. 하천구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2. 하천구역 결정(안)의 열람 및 주민의견 제출
   가. 열람장소 : 전주시 하천관리과(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13, 6층 하천관리과)
   나. 제출내용 : 하천구역 결정(안)에 관한 의견
   다. 제출방법 : 열람장소 비치 및 홈페이지에 공고된 서식에 따라 담당부서로 서면 제출
   라. 제출기간 : 공고일로부터 ~ 2025.12.08.까지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 하천관리과(☎063-281-514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11월 24일 전 주 시 장